

이슬람적 관점에서의 무신론

alsarhaan.com
2021

사랑하는 한국인 독자 여러분

무신론은 세계적으로 만연해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도 퍼져있습니다. 이 책자에서 전하고자하는 내용은 이 현상의 원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의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논리적인 사람들이고 진리를 이해하고 찾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책자는 진실과 진리를 아는데 도움이되며 논리적으로 이와같은 현상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책자를 읽으시고 진정으로 행복의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책자를 남겨두겠습니다.

ENGLISH	TRANSLATION
Atheism:	무신론
An Islamic Perspective	이슬람적 관점
“We (God) will show them Our signs in the horizons and within themselves until it becomes clear to them that it is the truth.” (Quran 41:53)	“나(하나님)는 자연의 여러 곳에 있는, 그리고 그들 자신 속에 있는 나의 징표들을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니 그들에게 그것(꾸란)이 진리라는 사실이 명확해질 때까지라”(꾸란 41:53)
This pamphlet introduces the Islamic perspective for believing in God. It explains how God provides signs of His existence – both through His natural creation and through revelation, and clarifies common questions by atheists.	이 책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이슬람적 관점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조물과 계시를 통해 그분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주시는지 설명하고,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합니다.
God calls on us to acknowledge Him through His signs and has made it our responsibility to ponder and reflect in order to recognise Him. Some people are receptive to these signs and see God’s work all around them, while others dismiss everything as random and meaningless. God has placed in every person, a natural inclination to believe, but this innate predisposition to believe can either be nurtured or suppressed.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증거를 통해 그분을 인정하도록 하였고, 그분을 인식하기 위해 깊이 생각해볼 책임을 주셨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증거를 받아들이고 그들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든 것을 의미 없는 우연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내재적 본성을 주셨지만, 이 타고난 성향은 갈고 닦아 더 뚜렷해질 수도, 혹은 억눌러질 수도 있습니다.
Importantly, God guides people who are <i>sincere</i> and <i>willing</i> to receive guidance. In other words, those who do not want to believe in God will not be guided.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진실하며 기꺼이 인도받고자 하는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는 이들은 인도받지 못할 것입니다.
God says, “God guides to Himself whoever turns to Him.” (Quran 13:27)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로 하나님께서는 뉘우치며 돌아오는 자를 당신께로 인도하시노라” (꾸란13:27)
This requires objectivity and an unbiased attitude to the possibility of God’s existence, which can be quite confronting and humbling for some people, but without this genuine openness and willingness, no amount of information can make someone believe. In fact, God warns us that those who approach His signs from a position of pride and arrogance will only find justification for their disbelief.	이를 위해서는 객관성과 하나님의 존재가능성에 대한 편견 없는 태도가 요구되며, 진리를 직면하며 겸손하게 되는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정한 열린 마음과 능동적인 태도 없이는, 아무리 많은 양의 정보도 믿음을 심어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자만함과 오만함으로 그분의 증거를 대하는 자들은 단지 그들 자신의 불신에 대한 정당함만을 찾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Therefore, we hope that those who are sincere, open minded and genuinely seeking the truth can benefit from this information and that it helps present a new perspective to understanding God.	따라서, 진실되고 열린 마음으로 진정으로 진리를 찾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이 책자가 유용하기를,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있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due to th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Islam and Christianity, many criticisms of Christianity simply do not apply to Islam.	또한, 이슬람과 기독교간에는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기독교에 대한 비판들은 이슬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힙니다.
Reasons To Believe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
The following are three rational reasons for believing in a creator.	다음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성적인 이유 세 가지입니다.
1. Beginning of the Universe	1. 우주의 시작
The first evidence that points to the existence of a Creator relates to understanding the origin of the universe.	창조주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첫 번째 증거는 우주의 기원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Imagine walking in a desert and finding a watch. We know a watch consists of glass, plastic and metal. Glass comes from sand, plastic from oil, and metal extracted from the ground – all these components are found in the desert. Would you believe that the watch formed itself? That the Sun shone, the wind blew, lightning struck, the oil bubbled to the surface and mixed with the sand and metal, and over millions of years the watch came together by random or natural coincidences?	사막을 걷다가 시계를 발견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시계가 유리, 플라스틱, 금속 등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리는 모래로부터, 플라스틱은 원유로부터 만들어지며, 금속은 땅에서 채취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사막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시계가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태양이 빛나고, 바람이 불고, 번개가 치고, 원유가 땅의 표면으로 올라와 모래와 금속과 섞여 수백만년에 걸쳐 우연의 일치로 시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Were they created from nothing, or did they create themselves?” (Quran 52:35-6)	“그들이 저절로 창조된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창조자란 말인가?” (꾸란 52:35)
According to modern science, the universe is finite and has a beginning. Where did the universe ultimately come from? Human experience and simple logic tell us that something that has a beginning does not simply come from nothing, nor can something create itself. We can reason that a higher “being” created the universe. This “being” must be powerful and intelligent as it brought the whole universe into existence and created the ‘laws of science’ which govern it. We can also reason that this “being” is timeless and spaceless, because time, space and matter began at the creation of the universe. All of these attributes make up the basic concept of God, the creator of the universe.	현대 과학에 따르면, 우주는 유한하며 기원이 있습니다. 우주는 근본적으로 어디서 왔을까요? 인간으로서의 경험과 기본적인 논리는 우리에게 시작이 있는 것은 단순히 무에서 창조되지 않으며, 어떤 것도 스스로를 창조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논리적으로 어떠한 우월한 “존재”가 우주를 창조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 우주를 창조하고 이를 다스리는 ‘과학적 법칙들’을 만든 이 “존재”는 막강하고 지능이 높음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존재”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시간, 공간, 물질은 우주의 창조와 함께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속성들은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립합니다.
Some may ask, “Who created God?”	“누가 하나님을 창조했나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God, the Creator, is different to His creation. Unlike the universe and the rest of creation, God is eternal, has always existed and has no beginning.	창조주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릅니다. 우주나 그 밖의 모든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며 시작 없이 늘 존재해오셨습니다.
2. Perfection of the Universe	2. 우주의 완벽함
The second evidence of a creator is the order and perfect balance of our complex universe.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증거는 복잡한 우주의 질서와 완벽한 균형입니다.
Could a large complex universe form by coincidence, without supervision?	이 거대하고 복잡한 우주가 감독 없이 우연히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Many features in the universe clearly indicate it to be specially designed to support life, such as the earth’s distance from the sun; the thickness of the earth’s crust; the speed at which the earth revolves; the percentage of oxygen in the atmosphere; and even the earth’s tilt. If these measurements were slightly different to what they currently are, life could not exist.	우주의 많은 특성들은 우주에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특별히 디자인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태양으로부터의 지구의 거리, 지각의 두께, 지구의 회전 속도, 대기 중 산소의 비율, 그리고 심지어 지구가 기온 정도까지도 말입니다. 만약 이러한 수치들이 현재의 상태와 조금이라도 달랐다면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In the same way that a watch has an intelligent maker to keep accurate time, so too must the earth have an intelligent maker to keep accurate time around the Sun. Could this occur by itself?	지능 높은 제조자가 정확한 시간을 맞추고자 시계를 만들었듯이, 정확한 시간에 맞춰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지구 또한 지능 높은 창조주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When we see the order, the precise laws and systems within ourselves and throughout the universe, is it not rational they have an organiser? This ‘organiser’ is again best explained by the existence of God – the one who brought about this order.	우리 자신 및 전 우주를 다스리는 질서와 정밀한 법칙들과 체계들을 볼 때, 그것들을 조직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합리적인

	결론이 아닐까요? 이 ‘조직자’는 이 모든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로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습니다.
It should be noted that Islam encourages scientific research and reflection. The role of science helps us describe the many observed patterns that God places in His creation and appreciate the extent of His power and wisdom. Advances in scientific discoveries, just like any mechanism or process we find in the natural world such as the water cycle or gravity – provides signs of an organiser and designer, not an argument against God.	이슬람은 과학적 연구와 사색을 권장합니다. 과학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주신 다양한 양식들을 관찰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에 감탄하게 합니다. 물의 순환이나 중력 등 우리가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구조나 과정과 같은 과학적 발견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반론이 아니라, 조직자와 디자이너의 존재에 대한 예증을 제시합니다.
3. Revelation from God	3. 하나님의 계시
The third evidence is the actual revelation that has been sent by God to humankind as a sign of His existence.	세 번째 증거는 하나님께서 그 분의 존재에 대한 예증으로서 인류에게 보내주신 계시입니다.
One of the main purposes of the book of Islam, the Quran, is to invite people to reflect and appreciate God’s creation as a way of believing in Him. Throughout the Quran, God calls our attention to His marvelous designs and complexities in the universe and within ourselves, which are sufficient to indicate that we are a product of design, purpose and intelligence. For example, God says:	이슬람의 성서인 꾸란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사색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꾸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주와 우리 자신의 경이로운 디자인과 복잡함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디자인, 목적, 지능의 산물임을 나타내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Indeed, in the creation of the heavens and earth, and the alternation of the night and the day, and the great ships which sail through the sea with that which benefits people, and what Allah has sent down from the heavens of rain, giving life thereby to the earth after its lifelessness and dispersing therein every kind of moving creature, and His directing of the winds and the clouds controlled between the heaven and the earth, are signs for a people who use reason.” (Quran 2:164)	“진실로 하늘과 대지의 창조와, 밤과 낮의 교체, 인간에게 득이 되는 것을 싣고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어 그것으로써 죽어 있던 대지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곳에 모든 종류의 기어 다니는 동물을 퍼뜨리심과, 바람의 변화무쌍함, 하늘과 대지 사이에 있는 굴중하는 구름에는 이성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징표가 있노라” (꾸란 2:164)
Moreover, there are clear signs that the Quran is the word of God.	꾸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분명한 예증들이 더 있습니다.
The Quran:	꾸란:
Is free from errors or contradictions.	오류나 모순이 없습니다.
Has been preserved, word-for-word, since its revelation in its original Arabic language, unlike other scriptures.	다른 성서들과 달리 애초에 아랍어로 계시된 이래로 글자 한자한자까지 다 그대로 보존되어 왔습니다.
The Quran is memorised cover-to-cover by millions of people.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꾸란을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부 외워 왔습니다.
Has a simple, pure and universal message, which appeals to Man’s intellect and inherent beliefs about Almighty God.	인간의 지성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내재적 본성에 호소하는 간결하고 순수하며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Is over 1400 years old with many scientific facts that were unknown to people of that time and have only been discovered recently by scientists. Examples include: water being the origin of all living things (Quran 21:30); the expanding universe (Quran 51:47); and the individual orbits of the sun and moon (Quran 21:33).	1400 년 이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었고, 과학자들에 의해 최근에야 밝혀진 많은 과학적인 사실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이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라는 것 (꾸란 21:30),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 (꾸란 51:47), 태양과 달이 각각의 궤도를 따른다는 것 (꾸란 21:33) 등 입니다.

Contains many historical facts that were unknown to the people of that time as well as numerous predictions, which have proven to be correct.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역사적 사실들과 나중에는 옳다는 것이 밝혀진 예언들을 담고 있습니다.
The Quran has a deep and moving effect on people.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Was revealed to Prophet Muhammad (peace be upon him) who was known to be illiterate, yet contains a unique style of language that is universally known as the pinnacle of Arabic eloquence and linguistic beauty.	읽고 쓸 줄 모르셨던 하나님의 사도 무함마드님께 (하나님의 평화가 그분께 깃드시길) 계시되었지만, 아랍어 수사법과 언어학적 아름다움의 절정으로 널리 알려진 특유의 어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The most rational explanation for the many unique and miraculous aspects of the Quran is that it can only be from God.	이렇게 수많은 꾸란 특유의 기적적인 특성들에 대한 가장 이성적인 설명은 꾸란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Questions about God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
“Why did God create us?”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나요?”
Everyone would acknowledge that our body parts, such as our eyes, ears, brains and hearts, have a purpose. Wouldn't it then make sense that the individual, as a whole, also has a purpose?	누구나 눈, 귀, 뇌, 심장과 같은 우리의 신체 기관들은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전체로서의 인간 또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을까요?
God, the All Wise, did not create us to simply wander aimlessly or to only fulfil our basic instincts and desires. Rather, God describes this life as a test. Every person is being tested as to who will choose to acknowledge God and follow His guidance. God says: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정처 없이 떠돌거나 오로지 본능과 욕망을 충족시키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현세를 시험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인도를 따를 것인지 우리 모두는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Indeed, We (God) created man ... in order to test him; and we gave him hearing and vision. Indeed, We (God) showed him the way, whether he be grateful or ungrateful.” Quran (76:2-3)	“실로 나(하나님)는 인간을 ... 창조하였고 그를 시험하니 그를 듣고 보는 자로 두었노라. 실로 나(하나님)는 그에게 길을 가리켜 주었으니 (그는) 감사하는 자거나 불신하는 자더라. (꾸란 76:2-3)
For many, the underlying issue is not really about believing in God, but about the <i>implications</i> of believing in Him. It would mean being held to account and judged for one's actions, which may be inconvenient for the lives they want to lead. Therefore, the test in this life involves following and humbling ourselves before God in preference to our own desires, pride and ego.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라기 보다는, 그 믿음이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는 우리의 행동을 심판 받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기에,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의 삶을 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세의 시험은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 자신의 욕망과 자만심을 누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것을 포함합니다.
“Why does God need to test us?”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시험할 필요가 있으신가요?”
God is not in need of anything - He does not need to create anything and does not need to test anyone.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어떤 것도 창조할 필요도 없으시고, 그 누구도 시험할 필요도 없습니다.
He does not benefit from our belief and is not affected by our disbelief. Rather, it is part of His infinite wisdom that He created us and gave us the opportunity to know Him. God knows the future - the point is, for us to live through and experience our lives and make our own choices.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어떤 혜택도 보지 않으시며, 우리의 불신으로 인해 어떤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무한한 지혜로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그분을 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까지도 다 아시지만, 우리에게 삶을 경험하고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Do we really have a choice?”	“우리는 진정으로 선택의 여지가 있나요?”

The fact that God knows our choices does not make it any less voluntary. Although God wants people to believe in Him, He does not force anyone. If God willed, He could guide all of humankind, as He has power over everything. But in His Wisdom, He has created us with the ability to choose and made us accountable for our choices. God is not necessarily pleased with everything that He allows to occur.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릴 결정을 아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결정이 자발적이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분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지만, 누구에게도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뜻하셨다면, 전 인류를 인도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의 지혜로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 만족해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Why doesn't God just reveal Himself?"	"하나님께서 왜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시나요?"
In God's wisdom, He has chosen to make Himself known through His signs. This is part of the test of this life.	하나님께서 그 분의 지혜로서 예증을 통해 자신을 알리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현세의 시험의 일부입니다.
He has made it our responsibility to use the abilities He has given us to acknowledge Him. This means that only those who are sincere, humble and reflect deeply will recognise and believe in Him.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분께서 주신 능력들을 사용하여 그 분을 받아들이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이는 진실하고 겸손하며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믿음을 가지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Why is there suffering in the world?"	"세상에는 왜 고통이 존재하나요?"
The fact that different people are tested in different ways through various trials, does not disprove the existence of God nor contradict an all-powerful God.	다양한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여러 시험을 받는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사실에 모순되지 않습니다.
Rather, the good as well as the bad that God permits to occur, constitutes our test on earth. We cannot control what happens to us, but we can control how we react, which is what He judges us on. This world is volatile and temporary, however, the full justice in the hereafter, which is everlasting, will more than compensate for any injustices or misfortunes in this life.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선 뿐만 아니라 악 또한 현세에서의 우리의 시험의 일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제어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현세는 불안정하고 임시적이지만, 영원한 내세의 완전한 정의는 현세의 어떤 불의나 불행도 보상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Why does God punish people?"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벌하시나요?"
No one can disagree with the concept of punishment, which is necessary for justice. God has created us with the ability to choose how we want to live, and in turn, be accountable.	누구도 정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벌의 개념에 반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할 능력을 주셨고, 따라서 우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Those who sincerely strive to obey God will earn God's mercy and enter paradise. But those who are careless about their purpose in life and deny God, have ultimately made their own choice and will be held to account. No one can blame God. God did not create people to punish them – rather, He intends ease and mercy for them. The fact that God knows our choices does not make our actions any less voluntary and does not absolve us from responsibility.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얻어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에 대해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들은 결국 스스로 선택을 한 것이 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시기 위해 인류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편이와 자비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릴 결정을 아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행동이 자발적이지 아니하거나, 우리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Islam is a practical religion that encourages a balance between hope in God's mercy and fear of His punishment - both of which are required to lead a positive and humble life. God is the Most Merciful but also the Most Just. If there were no day of Judgement, it would contradict the perfect justice of God, and life would be unfair.	이슬람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종교로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희망과 벌에 대한 두려움 간의 균형을 갖도록 합니다. 긍정적이고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둘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또한 가장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만약 최후의 심판의 날이 없다면, 이는 하나님의 완벽한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 되고 삶은 불공평한 것이 될 것입니다.
Conclusion	결론
Are we only here for 80 or so years, and that's it? Or is there more to life?	우리는 고작 여기서 80 여년을 살고 끝이 나는 걸까요? 아니면 인생에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요?
Are we just advanced apes with no ultimate purpose? Are we material beings with only physical needs or do we also have spiritual needs?	우리는 어떠한 궁극적 목적도 없는 진화한 원숭이에 불과한 것일까요? 우리는 오직 신체적인 욕구만을 갖고 있는 물질적인 존재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영혼의 갈망 또한 갖고 있는 것일까요?
For those who are genuine and still undecided about God, our advice is to sincerely ask for the following:	진실하지만 아직 신에 대해 확신이 없는 분들을 위한 우리의 조언은 다음과 같이 진심으로 기도 드리라는 것입니다.
"God, if you exist, please guide me." You might be surprised by the results!	"신이시여, 만약 진짜로 존재하신다면, 제발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께서는 깜짝 놀랄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Contact/Donation details (please provide the content you want for the bottom of the pamphlet)"	연락처 및 회사 관련 정보
Please also visit : YouTube : Burhan Ali Al kurdy برهان علي الكردي	더 많은 정보와 다양한 책자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YouTube : Burhan Ali Al kurdy برهان علي الكردي

